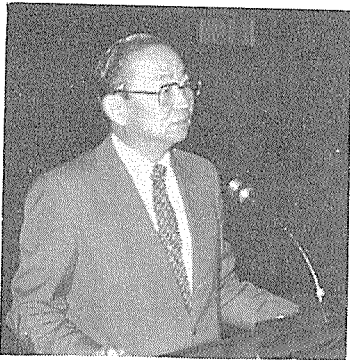


電子工業 振興을 위하여



會長 姜 晉 求

오늘날 電子工業은 國家發展에 中추적 役割을 하고 있으므로 各國에서는 電子工業의 開發과 發展을 위하여 多角的인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政府와 振興機關, 業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新製品開發과 輸出增大에 분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振興을 위한 電子工業振興會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電子工業은 國家發展에 中추적 역할

과거와 같이 政府의 委任業務인 輸出 추천이나 輸出入 統計, 海外 電子展 參加, 소극적인 立案 作成 등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行動하는 振興業務를 遂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電子工業을 육성 發展시킬 수 있는 政策的 立案 作成을 政府에 建議, 方向設定, 戰略事業 모색 등 進取的인 事業을 展開하여야 하며 問題點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시키는 것이 振興會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現在 우리 電子業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輸出의 不進으로 인한 資金難과 그에 따른 失業者의 발생도 그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業체의 生産性이라든가 輸出不進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振興會가 앞장서서 問題點을 소상히 파악하여 정부 요로에 건의하여 국민의 이해 촉구 등 문제점의 해결과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日本은 世界市場을 휩쓸고 있으며 台灣은 우리보다 많은 30억 弗 輸出을 達成하였음을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만에 비하여 60억 弗의 수출실적을 올려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問題의 核心, 問題의 相互연결, 展開 등을 組織的으로 리버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振興會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처럼 뒤떨어진 원인을 比較 검토하여 분석된 資料를 제시하여 개선하는 方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政府나 各界에 弘報 활동을 展開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만 일을 할 때가 아니고 業체를 쫓아다녀야 하며, 우리보다 앞선 국가에 파고 들어서 배우고 情報를 입수하여 더 좋은 方向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技術, 經營, 法的인 問題點, 價格 등을 先進國의 것과 비교 검토하고 中小企業과 大企業과의 관계 改善點 등 振興會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81年 12月부터 放映하기 시작한 컬러TV는 그동안 電子工業振興會에서 컬러TV 放映 必要性에 대하여 政府나 各界에 많은 建議를 한 결과 政府에서 겨우 납득이 갔기 때문에 放映이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電子工業의 死活이 걸린 컬러TV 放映 여부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하였던 지난날의 예를 들주어 본다면 일부에서는 컬러TV 放映은 時

지난 12月 11日 '81年度 臨時 總會에서 本會 非常勤 會長으로 選出된 三星電子工業(株)姜晉求 社長은, 12月 15日에 있었던 新 旧會長 離就任式에서 全職員에 게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을 강조 하였다. 다음은 그 要旨로 어려운 시기에 重任을 맡게된 姜會長의 擘言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編輯者 註 -

尖銳한 意識을 갖자.

期尚早라면서 國民經濟에 부작용을 가져오고 사치풍조를 조성한다 하여 반대도 있었으나, 결국 실현을 보게되어 우리 電子業界에 活力素가 된 일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일이 좀더 빨리 왔었다면 우리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國家發展에 기여도가 더 컸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컬러TV 放映과 컬러TV 市販의 開始 前에 우리 電子業界는 그야말로 침체에 허덕이며 減員 사태를 빚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三星電子만 하여도 상당수가 감원되었으며 전체 電子業界에서 3만명이 감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해 나아갔더라면 지속적인 發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黑白TV 生産은 거의 중단상태이며 家電製品 販買高의 70%를 컬러TV가 차지하고 있음을 볼때, 따라서 여기에 남품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형편은 일찍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컬러TV 市販과 放映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電子工業 發展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業체의 生産計劃, 아이디어 규합, 方向제시 및 創造的 역할은 振興會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이 電子工業振興會라고 봅니다. 지난달 본인이 日本 Sharp 電子를 방문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 5사람이 연간 수백만대의 電卓을 生産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모든 작업을 로봇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는 450여개 業체에서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한대의 로봇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봇의 이용은 生産性 向上과 原価切減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실현 단계에 있지 못합니다.

이 로봇을 輸入하여 製品을 生産한다면 原価절감이 되지 않으며, 결국 自体生産에 의한 量産體制가 되어야만이 國際경쟁력이 실현됩니다. 이러한 로봇 製作은 一個 業체에서 生産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生産計劃과 方向 제시 業체間의 아이디어 규합 및 창출은 振興會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電子業체를 代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電子振興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電子工業振興會에 일하는 全職員 모두는 이러한 사명감을 되새기면서 기백과 용기와 집착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電子工業이 기필코 世界水準에 도달하여 各國에서 우리의 製品을 찾는 그 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電子工業振興會의 會長으로 在職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業務를 遂行해 나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